

니오몬과 금강역사상

니오몬(仁王門)은 엔교지 절의 정면 현관입니다. 쇼샤잔 산의 동쪽 끝에 있는, 절에 도착하는 주된 경로의 끝에 위치하여 사원의 신성한 영역과 바깥의 속세 사이의 상징적인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정면의 폭 3 간(약 5.45 미터), 안길이 2 간(약 3.63 미터)의 고전적인 건축 양식입니다. 바깥에서 보면 기와 지붕에는 가운데에 한 층의 큰 지붕이 보입니다. 그러나 문을 통과할 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두 삼각뿔 보조 지붕이 감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독특한 설계는 도다이지 절이나 호류지 절 등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몇몇 사원에서만 볼 수 있는, '미쓰무네즈쿠리'라고 하는 양식입니다.

문 양쪽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. 그 안에는 오른쪽에 나라연금강상, 왼쪽에 밀적금강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이 두 수호신을 합쳐 금강역사, 또는 인왕이라고 하는데, 근육이 솟아 있고 사나운 표정이며, 불법(佛法)을 수호하고 외적을 쫓아내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. 이 두 상은 각각 입을 벌린 '아(阿)'와 입을 닫은 '훔(吽)'의 형상이며, 산스크리트 문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. 이는 '시작과 끝'을 의미하며 보편성과 전능성을 상징합니다. 이 수호신이 문을 지키는 모습은 동남아시아의 사원에서 자주 보입니다.